

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, 건설현장 우기·혹서기 사고 예방 교육

송예림 인턴기자 | 승인 2025.06.12 11:47



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안전보건협의체 6월 회의 진행 모습.(사진제공=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)

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(지사장 김태호, 이하 김포지사)가 지난 11일 건설현장 우기 및 혹서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.

김포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64조에 따라 매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은 직원 및 건설현장 현장대리인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.

이날 회의에서는 작업계획 전반에 관한 내용 외에 우기 및 혹서기 대비 현장점검 요령과 온열사고 대처,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구호 조치 등 현장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.

이어 지역본부 안전관리센터의 특별 안전 컨설팅을 통해 현실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.